



미키 우리들의 라오스 이야기



캠폰의 위앙싸마이



RaonAtti

RaonAtti 농사 서포터



에너지 드링크

- 엠로이 하썩
- 몸이 찌뿌듯할 때 먹는 서포터
- 한잔하고 일을 하면 호랑이 기운이 나서 농사를 할 때 한 잔씩 먹고 했다.



음악

- 동화 간사님이 mp3를 권유해주셨을 때 장만하여 가져갔는데 농사일 때 큰 도움을 줬던 서포터이다.
- 그 외에도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기분이 업된다.



이웃들

- 내가 혼자 아무리 잘하더라도 쉽지 않았을거다. 이웃들이 있었기에 수확도 한결 수월하고 든든한 서포터였다.
- 다 같이 식사를 할 때도 행복하다.

RaonAtti 벼 수확 준비



- 우리 논은 나케에 위치하여 거리도 있고 수확, 모내기를 할 때는 부모님이 뚝에 사시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싣고 수확 준비를 하였다.

RaonAtti 벼 베기 시작



- 드디어 농사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수확을 위한 준비도 하고 뚝을 정리하였기에 오후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서 이날은 가족끼리 벼 베기를 하였다. 한국에 부모님을 도와드려 농사일을 조금 해봤지만 벼를 직접 베 보는 건 처음이어서 민폐를 부리지 않기 위해 깨오 한테 베는 방법,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냐며 물어보았던 기억이 난다.

RaonAtti 벼 베기_1



- 부모님과 동생들이 그동안 이웃들의 농사일을 도왔었다. 그래서 도움받았던 이웃분들이 품앗이를 하러 나케까지 오셨었다. 그중 어느 날은 풍수에 사는 재만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기도 하고 고단한 노동을 힘들어하는 다희도 오기도 하고 바쁘실 텐데 캄디 선생님, 정화 선생님, 뽕까지 또한 전에 윤지네 농사일 도우러 캣, 아사, 캄폰이 간적 있었는데 품앗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끼앙, 뷔싸이, 윤지까지 도우러 왔다. 거기에 비엔티안에 지내는 그리운 아사까지 농사일을 도우러 왔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든든하였다.

RaonAtti 벼 베기_2



- 농사일을 시작한 뒤 며칠이 지나자 아침에 허리도 빠근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엠로이 하썩을 한잔하면 피로가 풀려 힘을 막 생긴다. 물론 가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힘들다는 생각도 하지만 벼를 베고 있으면 어느덧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음악에 심취하여 벼를 베고 있다. 쉬는 시간에 깨오와 찜이랑 라오스, 이성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RaonAtti 벼 묶기



벼를 벤 후 하루 정도 벼를 바짝 말린 후 벼를 묶었다.

벼를 벨때는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 적은 분들이 와서 오래 걸리겠구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벼를 베는 것보다 쉬워서 한결 나았다.

RaonAtti 벼 싹기



벼를 어느 정도 묶은 뒤 팀을 나누어 벼를 묶는 팀 벼를 나르는 팀으로 나누어 일을 하였다 땅이 고른 곳에는 경운기를 이용하여 벼를 싹고 질퍽한 곳은 사람이 직접 벼를 메고 벼를 싹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RaonAtti 탈곡



벼를 다 쌓은 후 나케에 사는 작업 기사(몽족)를 불러 탈곡을 하였다. 20가마가 나오면 1가마 씩 주는 대가로 온다고 한다. 벼 베기, 벼 묶기에 비해 1시간 30분 만에 끝나버려 허무하면서도 수월하였고 짚이 하늘로 날아가는 게 신기하기도 하였다.

RaonAtti 탈곡 완료



처음에는 쌀가마가 가득 쌓인 모습을 보니 든든하였는데 집에 가서 꿈이 나에게 얘기하기를 매년 100가마 씩 얻었는데 올해는 69가마 밖에 안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부모님 얼굴은 웃음이 가득하시지만 마음은 아프실 거라는 생각을 했다. 벼농사가 생계수단이기도 하면서 한 해의 결실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RaonAtti 쌀가마 운송



경운기 연식이 오래돼서 출력이 많이 안 좋았다. 다른 경운기는 12~16개씩 실어 가는데 우리는 6개씩 가마를 옮겨 이동하였다. 오르막길에서는 뒤에 타 있는 인원들이 힘껏 밀었던 기억은 잊지 못할 것 같고 두 번째 실어 오는 길에 어느덧 저녁이 되어 피곤했지만 귀신 얘기를 끄내 오싹하기도 하면서 별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다.

다음날은 이웃의 도움으로 다른 경운기가 같이 운반되면서 생각보다 빨리 운송을 끝냈다.

RaonAtti 뚝(식사, 휴식처)



- 점심시간이 되면 뚝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는 이웃들을 위해 요리를 준비하신다. 때로는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유용한 곳이다. 뚝 밑에는 내가 좋아하는 고추가 자라나서 따먹기도 하고 나케에 사는 개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오는 곳이기도 하다.

RaonAtti 중간점검_1



- 그동안의 생활을 보고하는데 어느 소감에서 갑자기 울컥했었다. 아사와 지낸 시간이 두 달 정도였지만 여동생 같았고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대해 이해도 잘해주고 하루하루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었기에 울컥했었던 것 같다.

RaonAtti 중간점검_2



- 간사님들과 마을을 둘러보다가 우리 집에서 점심 식사 대접을 했었다. 어머니는 이날 굉장히 행복하셨었다. 감사한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게 어머니의 문화라고 하셨다. 저녁에는 설거지를 도와드리고 하고 싶었던 말을 마니를 통해 통역했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기남 그리고 나를 아들 같이 생각한다라는 말에 울컥했었다.

RaonAtti 우리마을의 자랑



➤ 위앙싸마이 주력 축구선수들이다. 가끔 마니에게 센터를 맡기고 축구를 하는데 헛발질을 하는 등 자살골을 하는 등... 재미로 하는 정도이다. 다른 마을과 대결을 할 때는 구경을 하거나 사진만 찍는다. 애들은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이기냐 지냐에 따라 술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서 하지 못한다. (가끔 시합을 보면 이게 배드민턴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한다.)

➤ 최근 다른 마을과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하여 굉장히 기쁘다.



운동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건강에게도 도움 되고 평소 말을 섞지 못 했던 친구들과도 친분을 쌓는 효과를 주는 것 같다. 우리 마을은 축구를 가장 많이 하기에 못하지만 가끔 참여하고는 한다. 한국에서는 축구를 안 하기도 하였고 못했었기에 구경하기만 좋아했는데 여기서는 시선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즐긴다. 자살골을 했을 때는 민망하지만 친구들은 그냥 웃고 만다. 운동도 하나의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은 경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재미와 친목으로 생각하고만 만다. 그래서 운동 중 말다툼, 싸움을 전혀 볼 수 없었다.



- 벼 수확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행복했었다. 가족들이 한 해 동안 힘들게 키워온 벼이기 때문에 수확만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엄마, 아빠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하고 비슷한 점이 많았기에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어 드리고 싶었다. 정성을 다해 농부들은 매년 농사에 임하지만 때로는 자연재해, 고된 노동, 예측할 수 없는 수확량 이런 부분 때문에 농사는 어렵지만 그냥 나는 농사가 좋다. 어릴 때 부모님을 도와드릴 때는 힘들고 남에게 부모님은 농사한다는 얘기가 부끄럽다 생각했는데 철없는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사에 대해 잘 몰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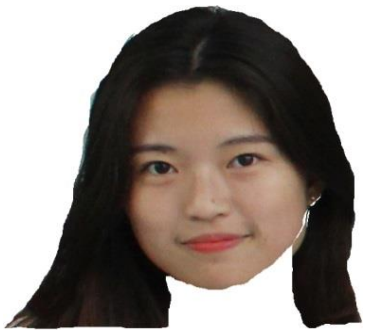
- 중간 점검을 하기 전까지 중간 점검하는 것에 있어 귀찮다는 생각을 했었다. 물론 간사님들이 오실 때는 반가웠고 세심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부분을 보고 감동도 하고 본인의 짐은 정말 조금인데 캐리어 하나를 우리를 위해 끌고 오셔서 미안하기도 하였다. 나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보아 좋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 행복한 시간이었다. 국내 훈련부터 지금까지 항상 감사 드린다. (간사님이 이쁘다는 소리도 여러 남자에게 듣기도 하였다.)



- 중간 점검을 마친 뒤 집에 돌아와 엄마와 얘기를 나누고 울컥하던 날이 있다.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밤이 되면 일주일 남은 것처럼 생각이 들고 라오스 가족들, 한국 가족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그렇다.
- 간사님이 주신 그럴 때 있으시죠라는 책을 읽으며 공감되는 부분도 많지만 더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 내년엔 다시 라오스에 가면 그때 용돈이 아닌 내가 번 돈으로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 아사가 떠나고 센터 운영을 마니와 내가 이끌어 가는 데 돈 한 푼 안 받고 애들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며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마니를 보며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아사와 수업을 했을 때와는 달리 아이들이 현저히 줄었다. 생각해보니 영어, 한국어 수업, 댄스 수업만 했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았나 싶다. 남은 기간 동안 아이들과 다양한 체험활동도 하고 수업 전 시간에 놀이도 같이 해 볼 생각이다.(지금은 아이들이 현저히 줄었던 이유를 찾았는데 아이들이 농장도 가고 집안일을 도와드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생각은 변함없다.)



따노이 의 마을

나케



개구리, 쥐, 곤충, 새 등 여기 오기 전 나의 가장 큰 걱정은 음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곳 라오스에서 저 것들은 더 이상 두려운 음식이 아닌 먹어본 음식이다. 밥상에 올라와 있는 이 낯선 친구들을 볼 때면

‘아 때가 왔구나’

마음속으로 심호흡 한 번 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우리 가족이 너무나 맛있게 먹기에.

아직까지 맛있게 먹는 내공은 부족하다.....

우리 팀은 미키 라오스

간사님께서 포장된 떡볶이를 선물로 주셨다.

때마침 가족들이 내가 만든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했기에
‘기회는 이 때다’ 생각했다.

But... 내가 만들면서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땡(둘째 동생)이 포장지 속 떡볶이와 내 떡볶이를 가리키며
버크(다르다)라고 진지하게 나에게 항의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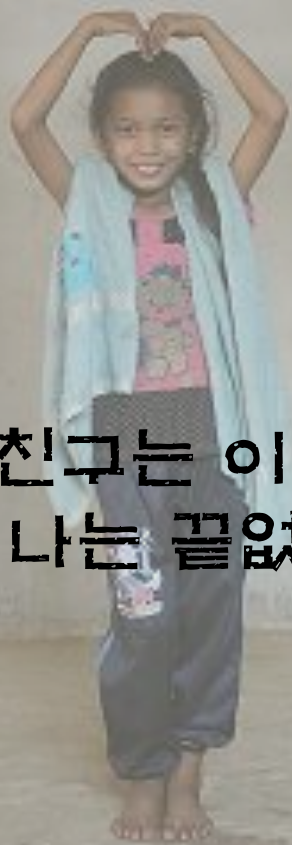
난 점점 작아질 뿐이고...

가족들이랑 먹으면서도 연신 커튼(미안해)을 외쳐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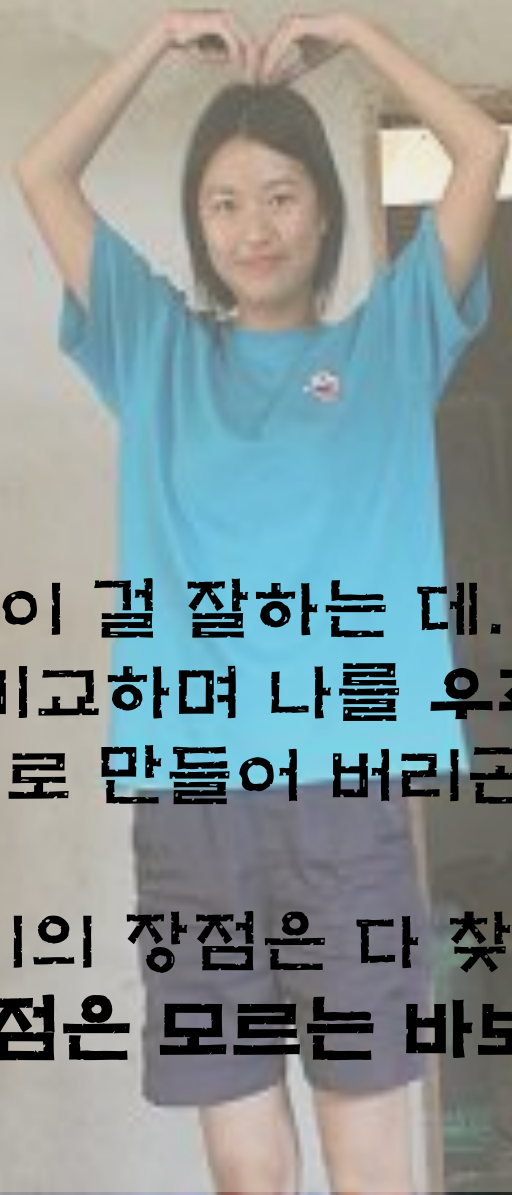
그래요. 파노이는 요리를 못해요ㅠㅠㅠ

파노이, 땡깁 버깅(요리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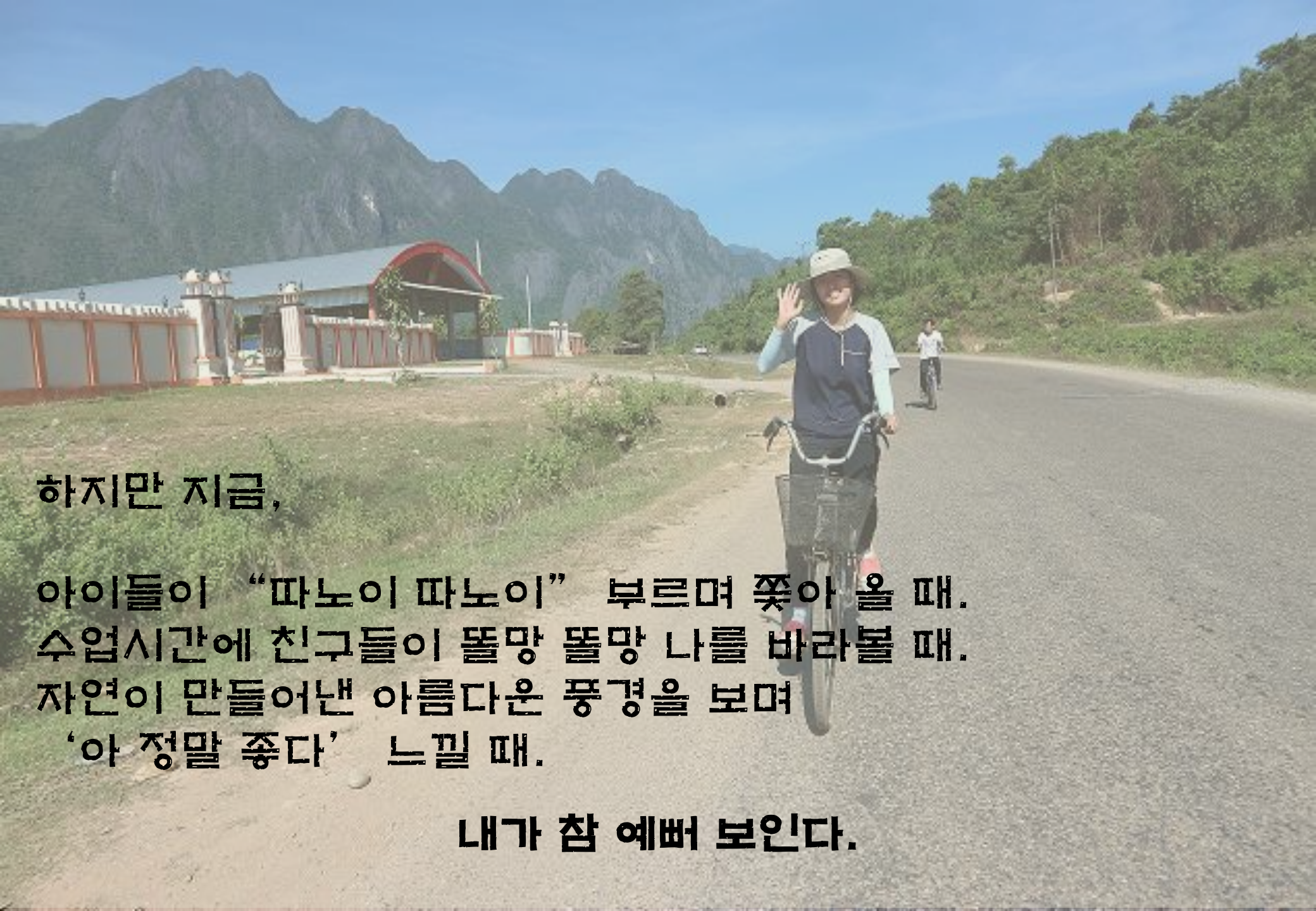
우주 최고 못난이



저 친구는 이 걸 잘하고, 이 친구는 이 걸 잘하는 데. 나는..
이전에 나는 끝없이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며 나를 우주 최고
못난이로 만들어 버리곤 했다.



세상 모든 이의 장점은 다 찾아내도
‘고다희’ 장점은 모르는 바보였다.

A person wearing a hat and a blue and white long-sleeved shirt is riding a bicycle on a paved road. They are waving their right hand. In the background, there are large, rugged mountains under a clear blue sky. To the left of the road, there is a building with a red roof and white walls, and some greenery. Another person is riding a bicycle further down the road.

하지만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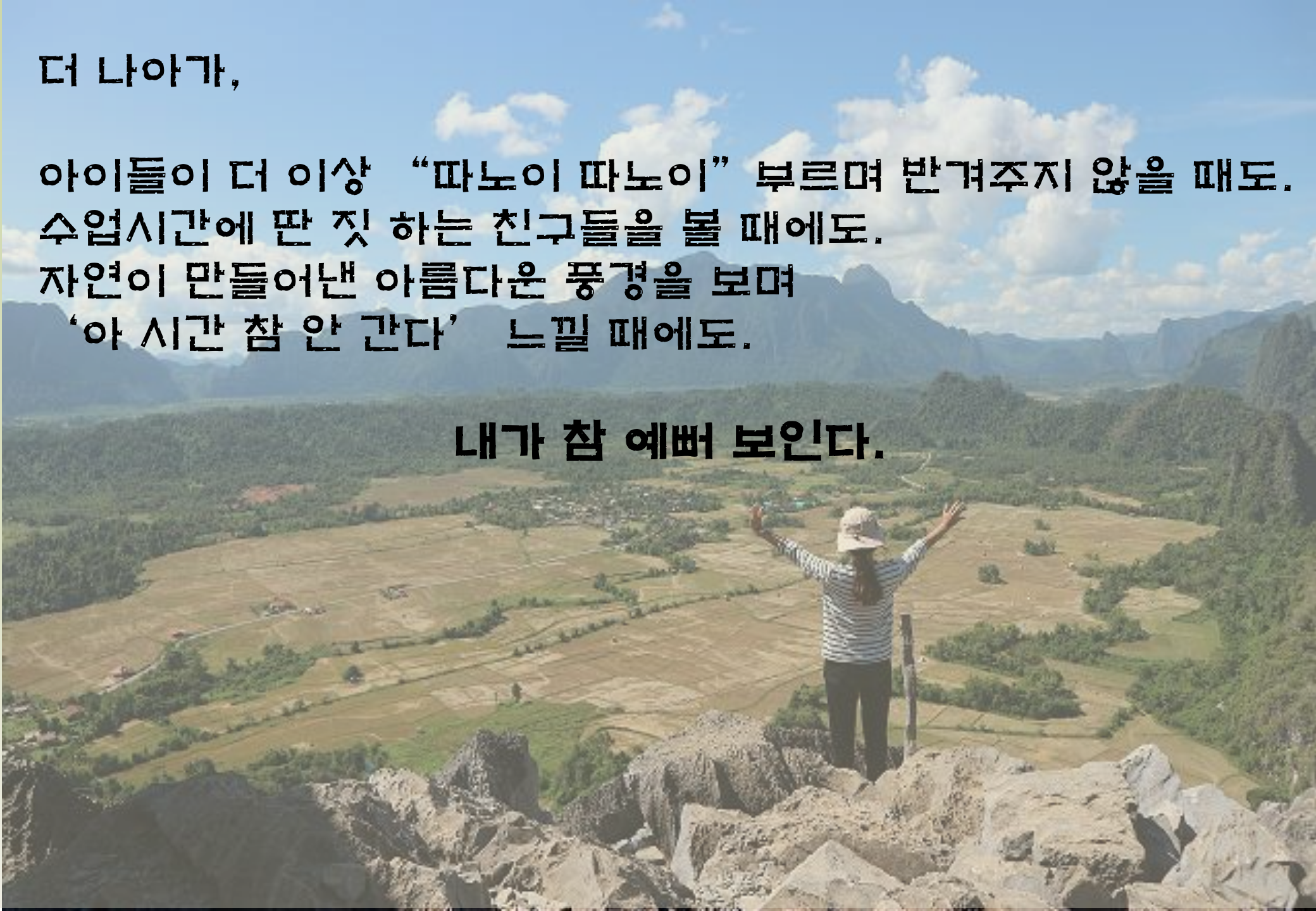
아이들이 “따노이 따노이” 부르며 쫓아 올 때.
수업시간에 친구들이 돌망 돌망 나를 바라볼 때.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아 정말 좋다’ 느낄 때.

내가 참 예뻐 보인다.

더 나아가,

아이들이 더 이상 “파노이 파노이” 부르며 반겨주지 않을 때도.
수업시간에 딴 짓 하는 친구들을 볼 때에도.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아 시간 참 안 간다’ 느낄 때에도.

내가 참 예뻐 보인다.



우주 최고 이쁜이

그 어떤 모습이라도 좋다.
그저 ‘고다히’가 좋다.

이 곳 라오스에서 비로소 나와 친해지는 중.

온도의 푸딩대
T L O

-Q&A-



Q. கொள்ளை பை காசு பித்த Best 3

A. 1) பூ சூலி

2) பூ

3) பூ

Q. 반응 좋았던 요리 Best 3

A. 1) 요리학원에서 배운 파파야 샐러드

2) 라오식 고구마 맛탕

3) 날리어머님이 가르쳐주신 막부양 고동볶음



Q. 좋아하는 수업 Best 3

A. 1) 가장 인기많은 K-POP 댄스 수업

2) 다음 선생님을 키우고 있는 중국어 B반

3)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포럼 수업

Q. 가족구성원임을 실감하는 순간 Best 3

A. 1) 막내가 오토바이 사고내서 보호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불려갔을 때

2) 둘째재언니가 아파서 비엔리엔으로 간호갔을 때

3) 아빠한테 학교 가정통신문 전해드릴 때



Q. 라오스인 다됐다 싶을 때 Best 3

A. 1) 다친 손 민간요법에 내맡겼을 때

2) 쥐, 원숭이, 닭 요리할 때

3) 어떤 단어를 라오스어로는 아는데

한국어를 가려워서 난감할 때

책
7)

이곳은 움직이는 책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교과서다. 나는 무언가 일을 해낸다거나 '잘' 살아
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살면서 아주 두꺼운 책 한권을
온 몸으로 읽고 있다.



시간이 없다. 자금도 시간이 없는데 남은 시간은 더 없다.
지난 2주, 내가 생각하는 라온아이를 정립하기 위해
4층 여유를 부렸다. 모두에게 남은 두 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선물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달려볼
생각이다.

풍송'by 캄라





간만에 카메라를 잡고, 간만에 논을 가봤다.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제발 그만 좀 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뻥질나게 갔던 논인데, 사람도 벼도 없는 논은 좀 낯설다.

아 시간이 흐르긴 흘렀구나



시간은 흘렀지만 딱히 바뀐 건 없다. 위 사진이 방비엥에서 그렇게 유명한 카르스트 지형이라는데 매일 보면서도 아직 카르스트가 뭔지도 모른다.



바뀐 건 없지만, 조금은 알게 됐다. 일현이라는 사람, 다희라는 사람, 윤지라는 사람, 깨오, 옹, 찜, 꿈,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 그리운 나의 가족들도.



무엇보다 나에 대해 이제 조금 알겠다.
라오스에 간다고 했을 때, 병X 다음으로 많이 들은 소리가 난 왜 사서 고
생을 하냐 라는 소리였다.
글쎄 난 왜 그럴까 싶었는데 이젠 알겠다.

난 원래 사서 고생을 하는 성격이다.
그리고 고생을 통해 배운다. 넘어지기 전엔 조심을 모른 달까.
살 날도 많고 몸뚱아리도 아직 멀쩡하니 아마 앞으로도 고생을 많이 사
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벼 수확은 이제 못하겠다)



**벼 수확 철에 아침마다 논에 가면서 참 많은 다리를 건넌었다.
이제야 눈에 들어온다.**

**23살 이제 곧 24살, 참 많은 다리를 건넌었다.
라오스에 온, 이제야 가슴에 들어온다.**



예전엔 마냥 무서워만 보였던 다리도, 이젠 건널 만 하다.
물에 빠져도 수영해서 다시 올라올 자신이 생겼다.



그 너머엔 항상 내 지친 몸을 기댈 곳이,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젠 다리를 만들고 싶어졌다.



솔직히 어떻게 만드는 건진 잘 모르겠다.
알아도 아마 잘 못 만들 거다.

어쩔 수 없지 뭐

별 수 있나 지들이 수영을 배워야지.



그래도 올라올 때 붙잡을 사다리 하나 정도는 놔주고 싶다.

내가 힘들었을 때 손을 내밀어 줬던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었듯이.



내가 이곳에서 항상 뒤를 잡아 줄 순 없으니까.



중간평가는 정말 땡큐하다. 오랜만에 만난 간사님
들 너무 반가웠고, 조금 생각이 정리가 안되기도,
나태해지기도 했었는데 좋은 자극이 되었다.

간사님들 사진이 없어서 떡볶이 사진을 대신 올립
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동서남북' 다시 엇갈려 나아 가겠지만

photo by



우리가 만난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말자.